

# 네스트로 마흐노가 '통합 아나키스트'들에게 반박하다. -1-

심장중의강철

아나키즘 세미나를 다녀오고서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접했다.(사실 발제에 본인이 참가하긴 했기도 하고)오늘은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였던 '마흐노의 불린과 같은 통합 아나키즘 비판'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다.(사실 말라테스타의 아나키적 볼셰비적 파시즘적 전위주의 얘기하고 싶었긴 했는데 이게 더 흥미로웠음)

일단 우리는 20세기 아나키즘 운동을 잠깐 살펴보겠다. 마흐노와 같은 이들이 러시아에서 혁명을 이끌었고 특히 우크라이나 자유지구는 그중에서도 꽤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 외에도 불린과 같은 이들또한 마흐노와 같이 활동했다. 이후에 자유지구는 볼셰비키에게 뒤통수 맞고 '바쿠닌'당해버렸고 마흐노는 프랑스에서 자유의지주의적 코뮌주의자들의 조직적 강령이라는 책을 썼다. 이에 대해 불린과 같은 러시아 아나키스트들은 마흐노의 정강주의가 지나치게 '권위적'이라고 비판했고 이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써의 아나키즘 '운동'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흐노는 이에 대해 '혼란주의자들'이라는 거센 비판을 가지고 부록을 달았다. 오늘은 그걸 잘 살펴보자.

## 첫번째. 조직적인 개념

물론, 아나키즘에 불명확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다. 아나키스트 운동 내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아나키스트적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적 liberal 경향과 개인주의적 일탈 역시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안정적 기반의 확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즘 운동을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과 일탈을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의 일부인, 공개적인, 혹은 정체를 숨긴 개인주의자들(그리고 『답변』의 저자들은 정체를 숨긴 개인주의자들임이 분명하다)은 이러한 숙청을 막아선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답변'[1]에서는 아나키즘 운동이 허약했던 이유로 조직, 사회 혁명등의 개념이 아나키스트 내부에서 혼란이 가중되었기에 일어났기에 조직자체가 안됐다고 봤다. 즉 이걸 해결해야한다는 말이었는데 '답변'측의 해답은 끊임없는 토론등을 통한 결론의 도출이었다. 그렇기에 모든 아나키스트들이 국가와 권위에 반대한다면 토론에 와서 해답을 찾아야한다고 말했고 이게 '통합 아나키즘'의 기초적인 이론이다.

'강령'은 이를 대차게 짚다. 이거 자체가 혼란주의라고 짚다. 일단 당연히 아나키스트 내부에서 제대로된 개념 정립이 없어서 혼란이 있는건 맞다. 그럼 일단 아나키즘에서 개념 정립을 먼저 하는게 맞는 일이다. '답변'은 이 문제를 토론등으로 해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론'을 만들어야한다. 왜냐하면 아나키스트들끼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선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것이 바로 '답변'이 혼란주의인 점이다. 에코이스트와 아나코 생디칼리스트들의 타협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간극을 좁힐 수 있더라도 그 타협점을 최종적으로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답변'측은 이를 해결하지 못했다. '국가를 거부하고 자본을 거부하면 전부 아나키스트다.'라는 말은 반대로 '그들 사이에서 아무런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수만 거대한 조직이고 아무 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이름만 아나키스트인 조직'이 될 뿐이라고 말이다. 에코이스트는 조직 자체를 거부하고 행동 자체도 거부할 것이다. 아나코 생디칼리스트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할 것이다. 코뮌주의자들은 조금 덜 조직적인 코뮌을 조직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주의자들과의 조직은 결사코 반대할 것이다.

이미 대표적인 3개의 분파들만 봐도 아나키즘의 가장 기초적인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다. 그 것이 혼란주의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이들을 억지로 '묶으려 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비-아나키즘적 행태'다. 아나키스트가 아닌 자들은 아닌 것이 맞으며 그들은 놓아주는 것이 맞다. 그 것이 아나키즘이다. 통합 아나키즘은 탈퇴를 '억지로'막아서려한다. 그리고 이들은 나중 가면 아나키즘이라는 개념자체가 희박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국가와 자본을 거부해야한다'에서 둘 중 하나를 뺄 수도 있다.' 이 것이 바로 개량주의가 가는 것이다.

아나키즘은 '충동맹'에 입각한 아나키즘이 존재하며 이에 옹호하지 않으면 아나키스트가 아니다. 지나친 에코이스트들은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그러면 서로 바이바이하고 다른 갈 길을 찾으려면 된다. 그걸 왜 같은 아나키즘으로 묶으려 하느냐?[2]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아나키스트가 아닌 이들이 빠지고 빠져)분열되고 조직된 아나키즘'조직이 행동하면 된다. 아나키즘은 개인의 해방과 계급투쟁을 중시하고 해방을 중시하지만 일단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들이 사회혁명의 이상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순간 다른 누군가는 그들이 폭력혁명에 반대한다고 말한다. 그 와중에 세 번째로 누군가 와서, 아나키즘적 코뮌주의 자체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 계급투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인다.

모든 상황들마다 “아나키즘의 원칙들”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총체적 이론을 장만하는 데 실패하였음을 증명할 뿐이다.

...

물론, 아나키즘에 불명확한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것이다. 아나키스트 운동 내에는 의심할 여지없이 아나키스트적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자유주의적liberal 경향과 개인주의적 일탈 역시 포함되어 있고, 이것이 안정적 기반의 확보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아나키즘 운동을 다시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향과 일탈을 청산해야 한다. 하지만 이 운동의 일부인, 공개적인, 혹은 정체를 숨긴 개인주의자들(그리고 『답변』의 저자들은 정체를 숨긴 개인주의자들임이 분명하다)은 이러한 숙청을 막아선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 연장선 '계급투쟁'

『답변』의 저자들은 이 명확하고 정확한 언명을 “우리는 통합synthesis을 만들어야 하며, 아나키즘이 계급적 요소와 인본적 요소와 개인주의적 요소를 모두 포괄한다고 선포하여야 한다”고 받아친다. 이것은 노동의 진리를 바라보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자유주의자liberal들과 공통되는 견해이다. 그들은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서 영구히 머뭇거리면서 경쟁 계급들 사이의 연결고리로 이용될 공통의 인도주의적 가치를 찾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불가분한 단 하나의 인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는 오로지 노동계급의 결단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뿐, 부르주아지를 포함한 인간 전체의 활동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관점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 비극에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의 견해다. 이러한 견해는 계급투쟁과, 아나키즘과 무관하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계급투쟁을 가져왔다. '강령'은 계급투쟁을 중시한다. 이를 부정할 수 없다. 아나키즘은 하나의 사회 '혁명적 운동'이다. 언제나 노동계급과 같이 투쟁해왔다. 아나키즘은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노력이 아니다.

자본과 노동이라는 사이에서 아나키즘은 전적으로 그리고 불가분적으로 노동계급과 함께 싸워야한다.

'답변'은 이에 대해서 '계급투쟁과 인본주의적 요소 그리고 개인주의적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을 주장했다. 즉 위에 말한 '통합 아나키즘'말이다. 그들은 부르주아와 노동계급 사이를 맴돌 것이고 그들의 '타협'을 찾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것을 '계급협동적 개량'이라고 부른다. 사실 파시즘도 이런 형태다. 다른 점이라면 파시즘은 그걸 의도했다는 거지만. 결국 이러한 계급협동적 행태는 '자유주의자' 즉 리버럴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은 '어느 편에서 행동해야하는지도 모른 채 갈팡질팡만 하는 위에서 말한 이름만 아나키스트인 덩치만 큰 조직'이 될 뿐이다.

---

#### 대중의 지도? 대중을 지원?

하지만, 아나키스트 사상이 대중 운동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잘 조직된 이데올로기적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대중들 사이에 매우 명확하고 일관된 이데올로기로 선전할 수 있는 아나키스트 조직이 필요하다. 이는 너무나도 기초적이고

자명한 것이어서, 오늘날 이 시점에, 아나키즘을 잘 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 번 이를 확인해줘야 한다는 것부터가 부끄러운 일이다. 또한 『답변』의 저자들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들은 우리의 관점을 오도하고, 아나키스트 총동맹에 관한 온건 명칭한 말들을 늘어놓은 뒤에, 아나키스트들이 경제조직 내에서 해야 할 일은 대중들에게 정신적, 사상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아나키스트 조직이 대중들을 “사상적” 관점에서 실제로 돕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강령』을 모욕한 뒤 『강령』의 입장을 빌리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가? “사상적 관점에서 대중들에게 영향과 도움을 준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아나키스트들이 유대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사적 형벌을 가하는 폭도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조력을 하면 되는 것인가?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 대중들에게 행하는 모든 조언은 아나키스트의 이데올로기와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아나키스트적인 조언이 아니다. “이데올로기적 지원”은 사상적 관점에서의 영향력 행사, 혹은 사상적 관점의 지도를 의미할 수 있을 뿐이다. 바쿠닌, 크로포트킨, 르클뤼(**Reclus**), 말라테스타 등은 의심의 여지없이 대중들의 이념적 지도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간헐적인 영향력 행사가 아닌, 영구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것은 공동의 이념으로 묶여 구성원들이 이념적으로 조정된 활동을 하는 조직을 통해 더 이상 옆길로 새거나 해소하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질 것이다. 이것이 제기된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다. 그리고 『답변』의 저자들이 이데올로기 영역에서의 지도가 권위주의적 지도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기 위해 꾀변을 늘어놓았음은 분명해 보인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다음으로 가면 이제 대중을 지도하는 것이냐 지원하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로 간다. '강령'은 분명히 레닌주의자와 유사한 방법을 진행한다. 다른 점이라면 전위당은 대중 속으로 침투하여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며 최종적으로 '그들을 지도'하지만 아나키즘은 대중 속에 침투하고 대중들과 상호작용하며 그들을 '지원'한다. 그리고 이 것이 반 강령주의자들이 강령주의를 '불세비즘과 한 발 짝 다른 아나키즘'이라고 평가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뒤에서 밀어주는 지원과 앞에서 이끄는 지도는 상당히 다른 면을 가지고 있다. '강령'은 혁명의 핵심 요소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인민들은 분명히 혁명적이다. 분명히 자신의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직하고 반대하고 싸운다. 우리는 이를 러시아 혁명에서도 봤다.

그러나 그러한 인민들 사이에서도 '아나키스트 전위조직'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에서 '소수의 지도적' 성격의 대중이 나올 수 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아나키스트 전위조직이 그 소수 지도자가 되는게 아니다.(그니까 말라테스타는 자기 머리를 한 대 쳐보자) 그 노동자 인민 대중 자체의 아나키즘 지지자들이 그 소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했다 노동자 자체가 '혁명적'이라고. 즉 모든 노동자 대중 자체가 그 소수나 다름이 없는 말이다. 우리는 그 노동자 인민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전위조직이 되어 '지도'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답변』의 저자들이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에 너무나도 무식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 모든 오도와 자의적 해석은 같은 결말을 낳는다. 우리의 반대자들이 “사상적 관점에서 대중을 지도한다”는 표현에 경종을 울리는 척 하는 것이 결국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곧 보여주도록 하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들은 그저 영향력이라는 개념을 너무나도 두려워하여, 스스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두려워하는 이상한 종자들이 아닌가? 대중을 “사상적” 관점에서 지도한다는 것은, 운동에 이정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적 투쟁과 요구들 내부에는 이러한 이정표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아나키스트들이, 대중의 이정표가 비엔나 노동자의 혁명운동을 배반한 사회민주주의자 따위가 아닌, 아나키스트 사상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

우리의 반대자들은 혁명은 인민대중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맞다. 하지만 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혁명대중은 그 심장에서 혁명을 준비하고 선도할 소수의 주도적 대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 아나키즘 지지자들이 그 소수가 되어야 진정한 사회혁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

이행기인가 아닌가?[3]

강령은 사회주의 정당들이 “이행기”라는 단어를 인민의 삶에서 구체제 질서의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적·정치적 체

계를 설치하는 과정이라고, 노동대중의 온전한 해방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체계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는 이러한 이행기 과제를 부정한다. 아나키즘적 코뮌주의는 노동대중이 스스로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를 놓는 사회혁명을 옹호한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답변'은 아나키즘을 '불세비즘을 수용한 아나키즘, 그 자체가 이행기'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하지만 강령은 이를 비판한다. 강령은 엄연히 아나키즘의 원칙을 지지한다. 자유연합론에 입각한 연방 꼬문제말이다. 하지만 '답변'측은 이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너희들은 혁명을 떠난 이들에게 식량을 배분하지 않으려한다. 아나키즘 사회에서는 생산한 모든 식량은 노동자 인민 대중이 누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말이다. 그래 맞다. 하지만 '혁명을 떠난'이들 중에 '부르주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식량'을 배분하는게 맞는가? '러시아 혁명기 당시 부르주아'들이 그만큼 '정직'하게 살았는가? 아나키즘은 다시 말하지만 유토피아도 인도주의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자 대중은 부르주아를 부양하지 말아야한다. 부르주아가 노동자가 되어 같이 생산하면 된다. 그럼 그들도 누릴 수 있다. 그들도 아나키스트가 되고 같이 노동하라 하면 된다. 그러면 될 문제가 아닌가?

우리는 이 관점에 대하여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혁명의 그 날, 노동계급이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계급이 『답변』의 저자들이 일하기를 거부하는 부르주아들에 대하여 보여주는 부드러운 보살핌에 대한 찬사를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답변』의 저자들이 그런 호의를 가지고 부르주아를 노동 사회의 정직한 구성원으로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다음으로 가보자. '배분'문제에서 '이행기적인 정치, 경제적 측면'의 문제다. '답변'은 강령의 체계는 국가라고 말한다. 하지만 '강령'은 반박한다. 사회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사회의 구성원인 노동자 대중의 창조적인 노력일 뿐이다. 그들이 실패하거나 혹은 성공함에서 여러 교훈을 얻고 거기서 지속적인 '교훈'을 얻고 끄끝내 사회혁명을 완성시키는 것. 그 것 자체가 아나키즘이다. 자유의 통제를 누가 푸냐고? 노동자 대중이 푼다. 노동자 인민 대중이 풀면 되는 일이다. 전위조직이 풀지 않으며 애시당초 전위조직은 존재조차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답변』의 저자들의 최고 걸작은 그 이후에 나온다. 그들이 『강령』의 모든 입장을 반박하고, 『강령』의 저자들을 부끄러운 불세비키라고 일축하고, 『강령』이 이야기하는 건설적인 체계는 이행기적인 정치적·경제적 측면의 국가라고 말한 뒤, 그들은 혁명 이후의 아나키스트 사회의 대담한 윤곽을 보여준다.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으며, 『강령』이 이야기하는 사회와는 공통점이 없는, 그런 사회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묘사도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혁명을 향한 창조적 노력은 “아나키스트 사회의 구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 말이다. 이제 『강령』을 보자. “사회 혁명이 노동자의 패배로 끝나, 다시 투쟁과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되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승리로 끝나 노동자가 토지, 생산수단, 사회적 기능의 수단을 손에 쥐는 경우가 되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자유로운 사회의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한 번 시작되면, 스스로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완성해나가는 것이 코뮌주의 사회의 건설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우리의 반대자들의 우뇌는 좌뇌가 행하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

아나키즘의 혼란주의자들에게 답함 - 디엘로 트루다

[1]러시아 아나키스트들이 강령에 대한 비판을 내면서 '답변'이라는 제목을 썼는데 마흐노는 이에 대해서 반박측을 '답변'이라고 표시했다. 나도 이와 같이 마흐노의 반대파는 '답변' 마흐노파는 '강령'이라고 쓰겠다.

[2]실제로 마흐노는 지나친 에고이스트들을 보고 '혼란주의자들, 상대할 가치가 없는 개인주의자들' 등의 표현을 썼다. 특히 아예 '숙청'해야한다는 말까지 썼을정도로 마흐노는 이러한 '행동할 생각도 없는 입만 나불대는 놈들'은 국가주의적 위선자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물론 본인은 '숙청은 선넘었어 이친구야...'긴 하다만..

[3]이 행기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이르는 말이다.